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조은정*

차례

1. 여대생 작가의 출현이라는 사건
2. 한국의 '사강' 발굴과 독서시장
3. '댄스' 할 수밖에 없는 '아프레겔' 여대생
4. 낭만적 사랑의 '실체' 있는 판타지
5. 공감과 위로의 글쓰기

국문초록

이 글은 195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 특징과 대중성을 최희숙과 박계형을 통해 해명하였다. 1959년 최희숙을 필두로 신희수, 박계형 등 일련의 여대생 작가가 출현하였는데, 이들의 작품은 독서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모두 영화화되었다. 1950~60년대 제도권 여성문학이 '부인' 작가 중심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기존 논의가 '아프레겔'로 재현된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상기할 때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대생 작가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전후 '프랑스와즈 사강'이나 '안네 프랑크'와 같은 '10대' 여성의 글쓰기가 흥행한 측면이 관련된다. 한국의 '유사 사강'을 필요로 했던 출판시장은,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교양과 지성을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선망과 비난의 시선이 착종된 양가적 위치에 있었던 여대생 필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최희숙의 일기는 심각한 경제난과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방황하는 젊음을 형상화하

* 성균관대 국문과 박사과정

고 있다. 여기에서 1950~60년대 신문에 등장한 여대생의 자살, 의식조사 기사를 함께 비교해보면, 최희숙의 작품은 당대 여대생의 고민과 내면을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레겔’에 대한 편견과 달리, 여대생은 학력자본과 경제자본의 불일치 속에서 불행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몇몇은 일탈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박계형의 소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연애와 결혼, 부르주아 가정의 행복한 일상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보여 준다. 이때 다른 작가와 다른 박계형의 ‘낭만적 사랑’이 갖는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서사와 동시에 소설적 장치, 디테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여대생의 설문조사를 참조해보면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은 여대생의 결혼과 관련된 판타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주인공의 시한부 선고에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스토리가 판타지라는 것을 작품 스스로 확인시킨다.

핵심어 : 여대생, 아프레겔, 최희숙, 박계형, 낭만적 사랑, 프랑소와즈 사강, 댄스

1. 여대생 작가의 출현이라는 사건

1959년 11월, 여대생 작가가 등장했다. 이화여대 국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희숙(崔姬淑)은 『슬픔은 강물처럼』(신태양사)을 출간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여대생 스스로, 여대생의 애정적 방향을 거침없이 서술한 것은 당시 ‘사건’처럼 주목받았다. 책의 인기에 힘입어 이듬해 정창화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되면서 “집 한 채 값”을 받기도 했다.¹⁾ 뒤이어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희수(申熙秀)는 1960년에 『아름다운 수의(囚衣)』로 서울신문사에서 모집한 ‘5백만환 장편소설’에 당선되었다. 이 작품은 “기성 도의에 저촉하는 한 여자대학생이 그가 꾸민

1)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114쪽.

새로운 도의에 적응하여 현 사회에 이름답게 영합하는 모습을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로 엮²⁾은 것으로, 성의 문제를 전면화한 점에서 관심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이것은 4·19 당시 사육이 불타는 바람에 3개월 간 ‘연재 중단’ 수난을 겪는 등 단행본 출간이 1980년에야 이뤄졌지만,³⁾ 영화는 1962년 이형표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형표는 오디션을 거쳐 태현실을 비롯하여 주연급에 모두 여대생을 등용함으로써 영화계에 여대생 배우들을 대거 진출시켰다.⁴⁾ 문학에서 시작된 여대생의 활발한 활동이 영화계에까지 파급된 것이다.

한편 1964년에는 고려대 영문과 2학년인 박계형(朴啓馨, 본명 朴淑子)이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로 동양라디오(TBC) 개국 기념 현상모집(상금 50만원)에 당선되었다. 자궁암으로 죽음을 앞둔 윤희가 남편과의 연애와 결혼 과정을 이름답게 회상하고 있는 이 소설은, 현상공모에 당선된 그 해 12월 라디오를 통해 낭독 방송되었다.⁵⁾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 반응은 2년이 지난 뒤 1966년 10월 신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부터였다. 그 해 12월부터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면서 30~40만부가 팔렸고,⁶⁾ 1975년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왔다.⁷⁾ 그리고 내용은 상당 부분 각색 되었지만 1969년 이형표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2) 「새 여류소설가 신희수 양, “상금 5백만환은 학비로 쓰죠”」, 『조선일보』, 1960.3.4.

3) 「첫 작품집 낸 신희수씨, 『아름다운 수의』 20년 만에 출간」, 『조선일보』, 1980.5.13.

4) 한양대 영화과 2년생인 태현실, 연세대 음악과 3년생인 최란경, 홍익대 조각과 1년생인 윤길자 등이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영화계에 신인전속 붐」, 『경향신문』, 1962.8.31; 「영화계에 뉴·웨이브 붐」, 『조선일보』, 1962.8.24.

5) 고선희, 「사랑이야기의 젠더적 특성과 1960년대 여성 주제」, 성균관대 국문과대학원 ‘한국근대문화론’ 수업 발표문, 2009, 1쪽.

6) 양평, 앞의 책, 142쪽.

7) 「베스트셀러」, 『매일경제』, 1975.12.9.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2위, 『고독한 사춘기』 5위로 박계형의 소설 두 편이 베스트셀러로 언급되어 있다.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순위에 박계형의 작품이 두 편 이상 목록에 있는 경우는 자주 있었다.

살펴본 바 이들 여대생 작가는 한국의 '사강'으로 호명되면서 1960년대 초반 독서 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먼저 여대생이 재학 중에 여대생을 주인공으로(박계형의 경우 여고생-여대생-가정주부로 주인공을 이동시키지만) 소설을 썼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사라 할 만한 연애와 성 문제를 작품의 주요 서사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등단제도(신춘문예나 추천제)와 무관하게 혹은 그것을 비껴서 ' 스스로' 작가가 되었다. 작품의 수준 여하를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소설이 언론과 영화계와 독서계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받았지만, 문단과 평단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것은 이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들어서 여대생 작가가 떼 지어 출현한 것은 (대중)문학을 넘어서 문화계 전반에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박정애가 논구한 바 있듯이, 1960년대는 여성작가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중 하나였다.⁸⁾ 그런데 이 시대의 한국 제도권 여성문학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중산층 여성작가 중심이었다. 상당한 재력과 품위를 가진 가정, 전후 문단의 보수적 헤게모니와 상충하지 않는 계급적 성향, 사회와 남성 문인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조신한 사생활 등 부르주아 여성작가군의 차별성은 제도권 문단에서 안정적인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 즉 누군가의 '부인'이 주도한 여성문학은 가부장제의 검열하는 시선을 의식하고 정치적 보수주의를 체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문학 활동은 자기 삶과 문학을 분리시키는 정도가 컸고, '실내'의 삶 안에서 즐기는 고급스런 여기(餘技)로 부러움을 사거나 경멸당했다.⁹⁾

8)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9) 위의 글, 52쪽.

당대 여성문학의 주류적인 모습이 이러하다고 할 때, 여대생 작가의 등장은 보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1960년대 초반 여대생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계급적 주체는 아니었다. 여대생이란 존재는 학력자본은 소유했지만 남대생에 비해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고, ‘아직’ 경제적 기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후 혼란한 문화적 행태의 책임이 이들에게 전가되면서 ‘아프레겔’, ‘전후파’란 수식이 따라 붙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대생 주체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글은 1960년대 초 중반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를 통해 당대 여대생의 삶과 인식의 저변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관련된 기존 연구는 1950년대 소설과 담론을 중심으로 ‘아프레겔’로 재현된 여대생에 관심을 가져왔다.¹⁰⁾ 이를 통해 전쟁 이후 남성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으로 제기된 남성 위기론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진한 여성을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여성 담론을 생산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여대생 작가의 작품들은 이 같은 여대생의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다 그 같은 표상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호기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아프레겔’이라는 자유로운 이미지에 힘입어(?)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내면을 마음껏 서사화 할 수 있었다. 즉 주류적인 ‘부인’ 작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부장제의 검열하는 시선에서 자유로웠던 여대생 작가는 그들의 삶과 가치관 등을 작품을 통해 직설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대생 작가가 쓴 작품은 재현과 표상의 측면에

10)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겔(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16호, 2006; 김현주, 「‘아프레 겔’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호, 2006;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겔」,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 참조.

서 접근한 기존의 여성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여대생 주체의 직접적 발화를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라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아프레겔’ 여대생이 스스로 그러한 이미지를 끌어안고, 어찌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 지 쓴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1950년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창간된 『여원』이 여대생 특집을 기획했을 때조차 이 특집 구성에 여대생 필자가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그래서 여대생 주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대생에게 계몽적 성격의 담론을 제공하는 기능에 그쳤다고 할 때¹¹⁾ 이 여대생들의 글쓰기는 보다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 글은 대중연애서사가 갖는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가부장제, 순결의 문제로 초점화 하는 기존 연구와도 거리를 두고자 한다. 김복순이 정리한 바 있듯이 낭만적 사랑은 근대 가부장제의 토대이고, 남녀 간의 사랑을 지배자/피지배자, 보호자/노예라는 구도로 환원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탈각시킨다.¹²⁾ 1960년대 대중연애서사에서 나타나는 순결-순수-전통 개념이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상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낭만적 사랑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역학을 설명해주지만, 그 같은 서사가 독자 대중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칫 거대담론 속에서 독자와 대중성을 수동적인 것으로 한정시킬 위험이 따르는 시각이다. 또한 이후 시기에도 존재하는 낭만적 사랑이야기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 스펙트럼을 가시화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작품들 간의 차이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송인화의 논의처럼 여성소설이

11)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1950년대 『여원』의 ‘독신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권보드래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참조.

12)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19호, 2008, 47쪽.

가부장적인 지배담론에 수동적으로 포획되어 있지만은 않으며, 사랑이 야기가 재현되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적 질서에 도전하고 해체하는 여성적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점을 논구하려는 것은 아니다.¹³⁾ 본고는 다만 이러한 관점을 잠시 유보해두고, 여대생이 소설을 썼고, 그것이 독서시장 및 영화계에서 강렬한 상품성을 가졌다는 현상을 1960년대 초반 여대생의 글쓰기와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상 작품들을 positive한 방식으로 읽음으로써 대중문학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여대생은 무엇을 말하고자 쓰는 자가 되었는지, 여기에서 확인되는 여대생 주체의 내면은 무엇인지, 그 작품들이 어떤 지점에서 대중의 욕망과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성문학의 흐름 속에서 여대생 작가 출현이 가지는 의미를 정초하고, 더 나아가서는 1960년대 대중성의 한 단면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사강' 발굴과 독서시장

『슬픔은 강물처럼』이 출간되었을 때 신문 서평은 “우리나라에도 최희숙이라는 10대의 소녀작가가 나타났다”며 ‘사강’과 같은 “나이 어린 여류작가가 출현하였음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¹⁴⁾고 흥분했다. 프랑

13)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강신재와 한무숙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1호, 2004; 송인화, 「1960년대 연애 서사와 여성 주체」, 『한국문예비평연구』 25호, 2008 참조.

14) 「신선한 진실과 매력, 최희숙 저 『슬픔은 강물처럼』」, 『조선일보』, 1959.12.21. 한편 『여원』에 실린 책 광고는 이 책을 “한국의 안네 양 출현! 현재 모 여대 삼학년 재학 중에 있는 저자의 놀랄만치 감각적인 첫사랑 일기”라 소개하고 있다. 안네 프랑크이든, 프랑소와즈 사강이든 결국 10대 여성작가의 글쓰기로 명명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여원』, 1959.2, 330쪽.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소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은 해마다 판을 거듭하는 인기를 얻고 1959년 영화로도 개봉되어¹⁵⁾ 대중의 관심이 크기도 했지만, 귀여운 문체가 여성 주인공의 방자한 젊음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비견될 수 있었다. 사강의 소설이 전후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강이 ‘10대’라는 세대적 감각을 호출했다는 점이다. 젊은 10대의 신세대가 글을 썼고 거기에서 그들만의 사생활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독서의 새로운 장이었다. 사강의 작품이 이러한 측면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은 관련 기사들의 면면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사강의 수식어는 줄곧 ‘현대적 감각’과 더불어 ‘10대’였다.¹⁶⁾

최희숙의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강을 먼저 언급한 것은 최희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1950년대의 끝자락에는 10대의 게다가 여성의 글쓰기를 읽고자 하는 독자가 형성되어 있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사 사강’ 혹은 ‘한국의 사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때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교양과 지성을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선망과 비난의 시선이 착종된 양가적 위치에 있었던 여대생은 가장 적절한 필자가 된다. 그래서 최희숙의 작품은 최희숙이라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2010, 357~358쪽에서 재인용)

15) 『슬픔이여 안녕』이 발표된 것은 1953년이지만, 국내에 번역된 것은 1955년이라고 한다. -권보드래, 『실존, 자유, 프래그머티즘-1950년대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권보드래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59~60쪽. 참고로 이 논문은 여성화되고 통속화된 실존적 감각이 당대에 널리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강의 인기를 해석하고 있다.

16) 「작가 ‘싸강’의 현대적 감각」, 『동아일보』, 1960.4.17. 덧붙여 사강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 그녀의 결혼과 이혼, 재혼 등은 동시에 여러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사강 이혼은 슬프다, 그러나 결행」, 『조선일보』, 1960.1.17; 「결혼이여 안녕!」, 『경향신문』, 1960.6.30; 「사강여사 이혼 허락」, 『동아일보』, 1960.7.1; 「미국인 조각가와 사강양 결혼설」, 『조선일보』, 1962.1.13; 「사강양 재혼 미국예술가와」, 『동아일보』, 1962.1.14.

는 개인을 넘어 상업적 출판자본과 대중이 요청한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로 읽어볼 수 있다. 당시 최희숙의 나이가 21세였음에도 만 나이 19세로 홍보되었던 점도 이 상황을 반증한다. 그래서 양평은 “제목도 별다른 이유없이 붙어져 나왔다”¹⁷⁾고 하고, 책의 제목을 누가 어떻게 지었던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슬픔은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이 ‘슬픔이여 안녕’에 편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¹⁸⁾

글을 쓸 때 출판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쓴 것도 공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 최씨는 소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중학 때부터 문학에 흥미를 느꼈고 대학시절의 명동생활 때는 특히 문인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저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슬픔은 강물처럼』을 내놓을 때까지 그의 글이 활자화된 것은 대학 1학년 때 월간 『여원』에 시 ‘반월’을 발표한 정도였다.

그러나 고교시절 『안네의 일기』를 읽은 이후 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는데, ‘영’의 입대를 계기로 집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최씨는 노트에다 일기를 썼는데, 1년쯤 써나가자 활자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명동친구’들에게 부탁했다. 모두들 가망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평론가 C씨가 신태양사의 편집장으로 있던 유주현씨에게 소개해줬다. “일기를 보자 뻔뻔스러운 정도로 당돌한 내용이었지만,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으며,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판단해서 출판을 결심했다”는 게 유주현씨의 말이다.¹⁹⁾

양평에 따르면, 최희숙은 실제 자신의 일기를 출판했다. “어디까지나 픽션이라는 본인의 이야기와는 달리”²⁰⁾ 일기 속 화자가 최희숙 본명일

17) 양평, 앞의 책, 114쪽.

18) 최희숙은 사강의 작품을 읽기도 했다. 11월 30일 일기는 미국인과 극장에 갔다가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아 난처했던 경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희숙은 “『어떤 미소, (싸강 작)』(145쪽)의 장면을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19) 양평, 앞의 책, 113~114쪽.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20) 위의 책, 111쪽.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들도 등장하여 이 작품은 최희숙의 실제 사생활로 읽혀졌다. 영화 <슬픔은 강물처럼>의 광고 문구 “전편에 넘쳐흐르는 애증의 갈등한국의 ‘싸강’ 현대 여대생 최희숙의 이색적인 애정수기 영화화!”²¹⁾를 보면 이 작품을 당시에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일기는 최희숙의 맨얼굴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최씨가 내놓은 글은 너무 부피가 작아 조금만 더 쓰도록 부탁했는데, 막상 출판된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려니, 한 줄도 더 쓸 수 없어 그대로 내놓았다”²²⁾는 것은 일기가 출판을 전제로 한 기획된 글쓰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일기 내용을 알고 있는 오빠가 출판 전부터 책이 나오면 너는 시집 못가고 집안망신이라며 두들겨 뺐고 책이 나오자 창피하며 첫 직장을 일주일이나 결근했”고, 학교 측에서는 다른 스캔들과 이 책의 출판 등을 묶어 퇴학처분을 내렸다고 한다.²³⁾ 이 같은 주변의 예민한 반응도 최희숙의 책이 위험하고 도발적인 사생활을 공개하였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²⁴⁾ 유주현이 “세계적인 추세”를 염두에 두고 날것으로의 최희숙의 일기를 보았을 때, 그는 매혹의 대상인 여대생 십대 작가의 글쓰기라는 상품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유주현의 예상은 적확했다.²⁵⁾ 이 책은 출판 1개월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으며, 그 후 2~3년 동안에 약 5만부가 나갔고²⁶⁾ 곧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다.

21) 『경향신문』, 1960.10.7, 하단 광고.

22) 양평, 앞의 책, 114쪽.

23) 위의 책, 115쪽.

24) 회고와 증언에 기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1959년 2월 7일의 일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부의 애정 향의」가 실제로 『동아일보』 2월 4일에 게재된 기사인 것을 보면 작품의 시간성이 현실과 밀도 있게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참고로 신태양사는 1950~60년대 책읽기와 대중성을 논의할 때 중요한 착목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최희숙의 작품을 비롯해서 당대 베스트셀러였던 허근옥의 『내가 설 땅은 어디냐』(1961), 김광주의 『정협지』(1962),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4), 유주현의 『조선총독부』(1965) 등 거의 매년 대형 베스트셀러를 발굴했다.

26) 양평, 앞의 책, 114쪽.

3. ‘댄스’ 할 수밖에 없는 ‘아프레겔’ 여대생

그런데 여대생 최희숙은 어째서 일기를 쓰게 되었는가. 출판을 의식하지 않고 쓰는 일기란 곧 고백의 글쓰기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이 글의 형식은 시종 애인에게 쓰는 편지²⁷⁾로 구성된 점이다.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저간의 사연을 이제부터 살펴 보려고 한다. 일기는 1958년 5월 27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8월 22일까지 약 15개월의 기간 동안 띄엄띄엄 쓰여진 것으로, 1959년에 출판되었으니 곧 현재의 이야기다. 일기의 화자는 1939년 경남 하동에서 사업가의 둘째 딸(위로 오빠, 아래로 고1 남동생)로 태어났고, 진주여중과 수도여고를 거쳐 이대 국문과²⁸⁾에 재학 중인 ‘제니’ 최희숙 자신이다.

그녀의 일상은 대학에 가서 김동명의 시론 강의를 듣고(66쪽), 영화를 자주 보며, 명동의 ‘갈채’나 ‘돌체’에 가서 음악을 듣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문인(김동리, 오상순 등)들을 비롯하여 학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본래 애인이었던 ‘엄영일’이 입대하자 부쩍 외로움을 느끼며 멋진 남성에게 호감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러다 그녀는 9월 2일 ‘돌체’에서 “신비와 모호한 고독을 함께 갖춘 보통 남자가 아닌 것 같”(45쪽)은 ‘보헤미안’을 만나 반하게 된다. 호가 ‘河人’이며 서라벌예대 연역과를 졸업했고 『현대문학』에서 시를 추천받은 시인인 ‘보헤미안’은 희숙의 이상형이었던 것인데, 그녀는 이를 “내가 찾고 바라던 사랑, 영혼과 육체가 결합할 수 있는 사랑”(46쪽)이라 표현한다. 그녀는 결국 ‘보헤미안’을 택해 애인이 된다. 그리하여 ‘영’에게 쓰여지던 일기는 1958년 10월 13일부터 ‘보헤미안’에게 쓰여진다.

27) 연서의 형식이 이 책의 상품성을 배가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춘원서간문법』의 인기를 염두에 둘 때, 전후에 한국어 문장을 미려하게 구사하면서 애인에게 편지를 쓰는 구성도 분명 책을 사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8) 최희숙, 『슬픔은 강물처럼』, 신태양사, 1959, 16쪽. (이후에는 본문에 쪽수만 표기)

그런데 희숙의 사랑이 옹아가게 된 데에는 중요한 계기가 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딸을 살뜰히 챙겨주는 어머니 사이에서 희숙은 유복하게 자란 것 같다. 그러나 일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못 되는 6월 18일, 그녀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아서 핏줄이 터”(32쪽)져 죽게 된다. “놀랍게 갑자기 달려든 불행”(31쪽)이자 “내 인생 최초로 다가온 이 불행”(35쪽)이 그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는 이 일기가 쓰여진 후 다음 일기를 쓰기까지 두 달 정도가 걸렸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엄마를 잃은 후 쪽지 빠진 계집애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며, 나는 외로운 몸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34쪽)라고 토로하거나 “질식할 것 같은 발걸음을 내디딜 적마다 ‘자살’을 생각해 보”(39쪽)기도 할 만큼 희숙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깊게 상처입었다.³⁰⁾ 더욱이 “당신(‘영’-인용자)을 보내고 뒤이어 엄마를 잃고 외로웠”(58쪽)던 희숙은 마땅히 의지 할 데 없이 괴로워했고, “내가 엄마를 잃어 거리의, 명동의 짐씨계집애가 되어 허탈에 빠진 것도 모르”(38쪽)는 ‘영’을 원망하기도 했던 것이다.³¹⁾

이제 그녀는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하고, 때때로 수업도 빠진다. 비오는 밤 “감정에 복종해보”(75쪽)고 싶어지자 군인 차를 잡아타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담배도 얻어 피우고 “저 나쁜 계집애 아네요. 그렇죠? 내 안에 모든 것을 뱉어버리고 싶은 거죠.”(76쪽)라고 말한다. 기어이 이렇

29) 한 달 정도 일기를 건너뛰는 부분이 두 번 더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장(‘사랑은 계절 따라’와 ‘안개는 걷히고 햇살은 번진다’)이 시작될 때이고, 감정이나 일상의 변화가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혹 책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일지도 모르겠다.

30) 이후에도 그녀는 자살 혹은 죽음을 여러 번 생각한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일몰. 당신의 말처럼 죽음의 여행”(88쪽)이라고 쓰거나 “그지없이 외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먹구름 흐려질 마음, 어느 구석에 죽음을 바라며 싸워보는 거예요. (중략) 찌니 죽고 싶지? 몹시도 죽고 싶지.”(216쪽)라고 넋두리 한다.

31) 그녀는 일기가 끝날 때까지 줄곧 엄마를 그리워하며, ‘보헤미안’이 “침묵, 고독, 가라앉은 사색”(61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희숙의 심리상태와 맞물린다.

게 방황하는 동안 희숙은 ‘아프레질’이 되어가는 것이다.³²⁾ 그렇지만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허영’에 들떠 거리를 헤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니’는 “××대학 국문과 2학년으로 같은 문학을 한다고 어떻게 알게 된, 멋대로 무엇이든 하려고 드는 애”(169쪽)인 ‘석이’가 술김에 키스를 하자 밀쳐내고 뛰쳐나간다. 시청 앞에서 사복 입은 미국인이 말을 걸어오자 “순진한 호기심, 어쩔 이방인으로 하여금 친구 애들 회화를 배우도록 해주겠다는 욕심”(144쪽)에서 극장에 갔지만, 그가 슬쩍 손을 잡고 애무하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서서 그 길로 극장을 나온다. 희숙은 여러 남자를, 심지어 즉흥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규칙’은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어른’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헤미안, 어른 되지 마. 우린 어른 되면 안 돼. 잠을 고이 자야해.>
<쩌닐 아끼고 싶은 목동, 순한 머슴애를 몰라? 쩌닐 아낄 거야, 안심하고 자.>(197쪽)

당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식을 줄 모르는 숨결 들으면 밤은 깊어가고…… 쩌닐 줄 수 있는 모든 것, 단 어른이 된다는 것만을 두고는 우리는 한 사람 영혼이 될 수 있었던 식을 줄 모르는 젊음을 애무 속에서 태울 수 있었던 거예요.(198쪽)

인용문은, 보헤미안이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피하고(10월 18일, 89쪽), 키스를 하려고 했을 때도 피했었던(11월 13일, 98쪽) 희숙이 마침내 크리스마스 밤에 종암동에 있는 ‘보헤미안’의 집에서 처음으로 같이 밤을 보냈던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른’이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섹스를 은유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 맥락

32) “나이는 같지만 한 학년 밑인 S대학 미술과”(91쪽)생 ‘국노’는 희숙에게 “너무 희숙씨는 말을 솔직히 해버려서 ‘아프레·질’ 같으니까 누구든 말할 거예요.”(95쪽)라고 한다.

속에서 보다 확장해서 읽어보면 “몰이해한 낯은 사람들”(256쪽)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어른’이 되지 않겠다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여대생’은 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아프레겔’이라고 낙인찍는 “어처구니없이 빠죽거릴 눈길들”(218쪽)이 기대하는 바 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그녀에게 시련은 또 찾아오는데, 바로 아버지의 사업 실패이다. “아침저녁으로 찾아오는 낮익은 빗쟁이들”(1959년 1월 30일, 214쪽)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윽고 그들이 집을 점거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각자 지쳐가고 분열하여 희숙은 견디기 힘들어 한다.

서로가 다 다른 분열 속에서, 아버진 우리를 이해하려 드는 기색도 없이 쇠약해져 신경질을 마구 퍼 부우시고, 오빠는 위신을 세우며 뺏뺏이 얼굴을 찡그리며 권위와 지배를 하려 들면서 특하면 꾸짖으려 하고 태식인 미련스러이 능글거리면서 멋대로 반항하려 들고, 참 딱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찌나가 이들을 혼자 이겨나가기란 눈물 없이, 평화스러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더 소생할 것 같지 않은 불안 속에서 찌넌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219쪽)

그런데 여기에서 최희숙의 일기를 여대생의 그것으로 읽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950년대 신문에서 여대생은 사회면 하단의 작은 사건·사고 기사로만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기사는 여대생의 자살과 관련된 것이었다. 1950년대 말까지 여대생은 ‘댄스’와 ‘허영’, 혹은 강간 및 실종사건 그리고 자살로써만 신문에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만을 살펴봐도 문란한 생활과 연애 좌절 등을 이유로 자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여대생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 최치숙, 22세, 서울여의대학부 1년 (『놀이난 여대생, 마침내 자살』, 1955.9.1)
 엄영희(가명), 19세, 서울 소재 모 여자대학 (『허영의 여대생』, 1956.4.13) :
 댄스홀에서 절도
 안영자(가명), 22세, 서울 소재 모 여자대학 (『여대생 음독자살』, 1956.4.25)
 : 이유 불명
 김덕희, 22세, 이화여대 4년 (『여대생 자살』, 1956.5.19) : 결혼 반대
 정영숙, 24세, 여대생 (『여대생 음독자살』, 1957.7.8) : 실연 비판
 박용순, 25세, 이화여대 (『여대생 음독자살』, 1957.9.16) : 문란한 과거
 밝혀져 연애 실패

최치숙의 경우를 보면, 홀어머니가 힘들게 키운 외동딸로 대학에 3등으로 입학한 수재이기도 했는데, 계모임에서 “허영에 들뜬 동무들”을 만나 “헛되이 외국풍을 숭상하여”³³⁾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살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960년대에도 여대생 자살에 관한 기사는 자주 등장하는 편이지만, 자살의 이유가 보다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여전히 연애의 실패³⁴⁾와 문란한 생활³⁵⁾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축첩을 비판하거나³⁶⁾ 미국 유학을 가지 못해 자살하기도 했다.³⁷⁾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가장 주된 자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난이라는

33) 『譴責듣고 자살한 여학생』, 『조선일보』, 1955.9.2.

34) 이정자(가명), 21세, 시내 J대 (『여대생 음독자살』, 『동아일보』, 1961.4.30)
 이영아, 20세 서울 소재 S사대 1학년 (『여대생이 음독, 애인 변심을 비판』, 『경향신문』, 1964.7.18)

35) 김정옥, 20세, 덕성여대 1학년 (『수업 중에 자살 여대생 약먹고』, 『조선일보』, 1960.6.4)

36) 허문자, 23세, 숙명여대 약학과 4학년 (『여대생이 자살, 아버지 축첩 비판』, 『경향신문』, 1963.6.8)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생활이 어려워 더 이상 학비를 보내줄 수 없다는 편지를 받고 난 이후 자살했다고 한다.

37) 박귀자, 22세, 이화여대 신문학과 3학년 (『여대생 음독자살』, 『동아일보』, 1964.9.27); 오애옥(가명), 21세, 서울 소재 E대학 (『미 유학 못해 자살』, 『동아일보』, 1961.12.4) 기사에서는 오애옥이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도 받는 모범생이었는데, 부모들의 반대로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을 비판했다고 말한다.

점이다.³⁸⁾ 미국 유학이 좌절된 여대생의 경우도 경제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한 발 더 나아가 특별한 ‘개인’으로서의 여대생이 아니라, 여대생 일반이 신문의 상단으로 위치가 이동하며, 직접 발화가 발견되는 시기는 대략 4·19 이후라고 할 수 있다.³⁹⁾ 여대생을 대상화하려는 시각에는 차이가 없지만, 적어도 이제 “여대생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⁴⁰⁾와 “요즈음 여대생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또 바라고 앞날을 꿈꾸는지?”⁴¹⁾ 궁금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대생을 잘 알 만한 교수가 여대생에 대해서 논설을 쓰거나⁴²⁾, 여대생에게 설문조사, 좌담회, 인터뷰를 실시하고, 종종 여대생이 직접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여대생의 실태는 다소 흥미롭다. 먼저 1960년대 초반 여대생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이화여대에서 5백 명의 여대생을 상대로 설문⁴³⁾한 것에 따르면 “당신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라는 질문에 “인생은 행복보다 불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답이 38.3%, “인생이란 그저 그렇다”가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이주 행복하다는 낙관론은 불과 6%이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하위 제목은 ‘비관적 인생관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아관’에 관한 설문결과를 보면,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극

38) 양봉자, 23세, 숙명여대 영문과 3학년 (『등록금에 깨진 모녀의 꿈, 여대생 양양의 죽음』, 『조선일보』, 1961.2.10); 최모양, 20세, 서울 소재 모대학 1학년 (『길가에서 읊독 여대생 중태』, 『경향신문』, 1965.2.9); 최경자, 19세, 서울 K여대 1학년 (『가난한 여대생 자살』, 『동아일보』, 1965.7.8)

39) 여기에는 4·19 이후 여대생의 사회활동 내지는 사회참여가 확대된 측면이 작용했겠지만, 신문의 ‘여성란’ ‘가정란’ 배치가 기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40) 『여대생들의 인생·여성·직접·자아관』, 『조선일보』, 1961.5.11.

41) 『설문에 나타난 여대생들의 생활실태』, 『조선일보』, 1961.11.28.

42) 김옥길(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교수가 본 요새 여대생』, 『동아일보』, 1960.10.15.

43) 『여대생들의 인생, 여성, 직업, 자아관』, 『조선일보』, 1961.5.11.

소수이다.⁴⁴⁾ 한편 “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생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⁴⁵⁾ 여대생들이 남대생보다 취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사에는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 장래의 취직이나 진학, 생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여성에 있어 결혼에 대한 관심보다 이 방면의 그것이 3배나 높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화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졸업 후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1961년에 76%,⁴⁶⁾ 1964년에 77%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그러나 1964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취직이 결정된 사람은 단 5%에 불과했다.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1960년대 초반 여대생들은 고등교육을 통해 학력자본을 소유하고 지성을 갖추었으나, 그것을 실천할 장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을 갖고 독립된 주체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열정도 있지만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⁴⁸⁾ 그래서 동시대의 ‘최희숙’들

44) 질문은 “나는 무엇이며 내 능력은 얼마나 되며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나의 존재 가치란 무엇인가?”였는데, 43.6%는 “나는 나에게 능력만 있다면 어느 정도 가치있는 일을 하고 여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에 동감했고, 34%는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에 응답하여 자기만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자신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고 하는 학생은 극소수이다.”라고 언급한다.

45) 『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생태』, 『조선일보』, 1960.12.14. “지난 10일 하오 중앙교육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월례연구발표회에서 서울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성진씨는 「대학생의 문제와 대학생지도계획에 관한 일연구」에서 대학생 2390명(인문계=1570명 이공계=820명 남=1023명 여=2390명)에 대한 30여 종류의 설문 결과를 집계해서 그 동향을 보고하였다.”

46) 『통계표에 나타난 여대생들의 졸업 후 희망』, 『조선일보』, 1961.3.8. 이 설문조사는 금년 이대 졸업생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47) 『마음도 세모, 여학사 예비군들』, 『조선일보』, 1964.12.15. 이 설문조사는 이화여대 생활지도부에서 내년 졸업생 2천여 명 중 132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대학보』에 실린 것을 재수룩한 것이다.

48) 이미 1961년 통계에서도 여대생들이 가장 취직을 희망하는 곳은 ‘학교’이다. -『통계

은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졸업을 하는 동시에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기성사회와 기성가정에 대한 불신”⁴⁹⁾을 공유했다. 1967년에는 이대 총학생회와 숙대생활지도연구소의 학생생활백서에서 “이유 없는 불안, 생활에 대한 부적응,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등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이 3분의 2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⁵⁰⁾” 그리고 “이와 같은 좌절은 어느 기존의 가치체계에의 의존이나 믿음에서 내동댕이쳐졌을 때 생긴다. 여대생들은 기존 모랄의 부정에서 내동댕이쳐졌고, 부모나 교수에의 저항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제 학문에서까지 소외되었을 때 학생의 좌절감은 한결 높아지고 이상과 같은 정신질환의 전증세정(前症勢症)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 같은 소외감에서 여대생들은 데이트와 아르바이트로 탈출을 모색”한다고 보고한다.

다시 최희숙에게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희숙은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벌 궁리를 한다. “신문에 ‘빠아·걸’ 모집”(253쪽)이 난 것을 보고 아버지와 의논하자, 아버지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뺨을 때리며 “그래 대학교를 댕긴다는 것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니?”라고 분노한다. 이 때 오빠가 들어오다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표에 나타난 여대생들의 졸업 후 희망, 『조선일보』, 1961.3.8.

49) 『새 세대 여성들이 원하는 나의 길』, 『동아일보』, 1960.12.13. 이 설문조사는 동아일보사에서 이대, 숙대, 서울문리대, 음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고대 등 총 1040명의 여대생에게 실시한 것이다. “졸업을 당하여 학원을 떠나는 심정”을 질문했을 때, 51.8%는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기자는 “반 이상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했다. 이 말은 그들의 심정을 가장 정직하고 알맞게 표현한 말인 동시에 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밀리듯이 또는 끌리듯이 어떤 경우는 악착스럽게 노력하여 대학을 마치게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역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기성사회와 기성가정에 대한 불신과 인정할 수 없음을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방법이나 대책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정리했다. 덧붙여 지적해둘 것은, 이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1960년대 초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결혼’과 ‘직업’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50) 『아웃사이더 여대생, 과외생활백서』, 『조선일보』, 1967.11.28.

이익되게 하려던 쟈니의 그 안타까운 맘, 늙으신 아버지를 돕는데 직업의 차이가 어디 있겠느냐구 벌써부터 굳게 굳게 맹세한 것은 조금도 몰라주고 쟈니가 나빠서, 타락이 되구 싶어서 빠아·겔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255쪽) 한다.

불행과 …가난, 그나마 몰인정. 몰이해한 이 낡은 사람들 앞에서 운다는 건 쟈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곳곳이 앉아서 눈물을 닦고 반항하듯이 화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중략) 엄마, 아버지 이해가 없어요. 희숙이가 아버지 얼마큼 생각해서 돈을 벌어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맘을 몰라요. 오빠는 오빠대로 꼬챙이 같은 성미로 희숙일 미친 애니 뭐니 하고, 허영에 들떠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256쪽)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빠겔’이라도 해보겠다는 최희숙의 얘기는 일탈과 ‘허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친구 헤미는 희숙이 보기에 “볼품없고 병신 같은”(268쪽) 룸펜을 만나고 있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헤미는 그에게 종종 돈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희숙의 반응은 “헤미가 어떤 구렁텅에 빠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안타까이 빌고”, “모든 환경의 지배로 헤미가 이런 길을 스스로 견게끔 만드는 부모들”(269쪽)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은 이화여대 사회과 3학년인 이정자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여대생’ 하면 위선 그 어감부터가 눈이 부실듯 밝고 호화스런 느낌이 들듯이 여성의 평생을 통하여 여대생 시절이란 분명 어디다 비길 데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이것은 첫째 ‘여대생’이란 젊음의 상징이며 또 한껏 가슴을 펴고 새파랗게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마음대로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래서 일반사회인들의

기대도 그만큼 큰 것이고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 아래 근거 없는 약점으로 터무니없이 욕을 먹는 수도 허다하다. 이 비난은 ‘여대생’이라는 이질적이고 사치스런 관념이 풍기는 일종의 부러움 같은 일반의 관심보다 훨씬 가혹하고 억울한 것이다. 특히 전쟁을 치르고 난 우리나라는 **전화로 인한 무질서와 생명에 대한 허탈감 등으로 마구 상처난 흔적을 유독하면 ‘여대생’ 세계에서 발견하여 비관**하고자 한다. 소위 말하는 ‘아푸레’니 ‘전후파적’이니 하는 수치스런 형용사가 붙게 된 것도 이들의 지나친 관심의 소산이 아닐까. 구태여 ‘아푸레’니 ‘불량소녀’ 등의 극언을 붙이지 않더라도 걸핏하면 요즈음 여대생은 저고리고름 하나 달 줄 모르고 연애를 밥먹듯이 하며 책은 멋으로 끼고 거리로 거리로만 돌아다닌다고 **사실 아닌 사실을 함부로 규정**지우고 있다. (중략)

우리가 다시 사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따뜻한 온기가 도는 애정이다. **오늘의 여대생은 사회가 이색시하는 만큼 부조리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더할 수 없는 건실한 바탕 위에 서 있다. ‘여대생’이 학비가 없어서 유흥장에서 ‘알바이트’를 갖고 있다 하여 그 여성은 반드시 불건실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제적 가난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배우고 알고 싶은 의욕과 이를 성취시키는 ‘기름’ 격인 재력의 불균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처럼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신음하는 많은 ‘여대생’들에게 사회는 또 차고 날카로운 눈으로 약점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⁵¹⁾

본고는 결국 이정자의 글을 인용하기 위해 돌아왔다. 이정자는 여대생에게 부여된 ‘아프레걸’이라는 이름이 “학생에 대한 어른들의 기형적인 인식과 관심”⁵²⁾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건국대 법과를 야간으로 다닌 현안순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벽찬 일상이 자신과 같은

51) 이정자, 『따뜻한 온기도는 애정 여대생으로서 사회에 바란다』, 『조선일보』, 1960.11.19.

52) 김옥길, 『교사가 본 요새 여대생』, 『동아일보』, 1960.10.15. 김옥길도 여대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언뜻 보기에 화려한 것 같고 사치한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은 학생들의 색깔이나 디자인을 가지 개성에 알맞도록 선택의 눈이 세련되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언제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과 그들이 가장 이쁘고 싱싱한 젊음에 넘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처지의 동무들의 곤경이라며, “나를 키운다는 것은 눈물겨운 고통”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피로는 무서운 열등감을 가져오는 수도 있다”⁵³⁾고 고백한다. 그녀들이 여대생으로서 배운 것은 학력자본과 경제자본의 불균형이었다. 여대생들은 지식을 쌓았지만 계급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고, 그 지식은 그들을 시종 불안하고 불행하게 했다. 이 불안은 전후의 실존적 불안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여대생 최희숙은 마침내 1959년 4월 21일 “아무런 흥미도, 느낌도 없이”(283쪽)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댄스’장에 간다.

4. 낭만적 사랑의 ‘실체 있는’ 판타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⁵⁴⁾은 평범했던 여대생 박계형을 대중문학과 방송계에서 스타로 만들어 준 소설이다. 이 책은 1966년 10월 신아출판사에서 단행본이 출간되자 당시로서는 초유의 40만부 판매로 독서계에 돌풍을 일으켰고,⁵⁵⁾ 적어도 1970년대 말까지 꾸준히 읽혔다. 은희경(59년생)과 김형경(60년생) 같은 현재 작가가 된 이들도 십대 때 박계형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한다.⁵⁶⁾ 이뿐만 아니라 박계형은 다작한 작가

53) 『야간 여대생의 고애』, 『조선일보』, 1960.6.22.

54) 박계형,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삼육출판사, 1992. (이후에는 본문에 쪽수만 표기)

55) 『60~70년대 인기작가 박계형 신작 ‘임종’ 내놓아』, 『조선일보』, 2001.8.6.

56) “사르트르와 칼 쉴터와 토마스 울프를 역지로 읽으며 박계형보다 재미없다는 불온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바람에 소스라쳐놀라곤 했던 그 시절의 나는 용돈을 쪼개 정음사와 유희문고의 전집을 할부로 들여놓는 일로써 인생을 이미 지적인 일에 투자하며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은희경, 『자전소설-서정시대』, 『문학동네』 10호, 1997.봄)

“십대 때 저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나 『삼대』와 마찬가지로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한국문학사를 공부할 때 그 작품들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김소진, 『그리운 동방』,

였는데, 70년대 후반까지 십여 년 동안 쓴 수십 권의 소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자주 올라왔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베스트셀러사에서만 발견될 뿐, 문학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작품의 수준이 조야하다고 하더라도 1960~70년대를 관통하는 대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박계형의 소설⁵⁷⁾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자궁암으로 ‘2달’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윤희가 별장으로 요양을 가서, 지금은 남편이 된 성호와의 연애와 결혼 과정을 회상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뱀바위골’이라는 “조그맣고 아담한 마을”에서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던 가정에서 윤희는 “전설이나 동화 속의 하늘처럼 늘 푸르고 맑았던”(21쪽)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 ‘김상국’이 요리점 운영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11세 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다. 김상국의 집은 “살구나무와 앵두나무가 많았던 커다란 일본집”이었고, “현관까지 차가 닿을 수 있도록 정원에 차도까지 있었던 집은 우람했다.”(28쪽) 이 집의 외아들인 성호는 “갓 중학교에 입학한 흥안의 미소년”이었는데, 윤희는 “그의 명석한 두뇌와 황홀할 정도의 미성과 그의 호화찬란한 환경에 대해 일종의 동경 같은 부러움을 갖고 있었다.”(29쪽) 그런데 윤희가 16세 때, 김상국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자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던 부인은 갑자기 벌어진 사태에 당황해서 무조건 아버지에게 의뢰하려고”(31쪽) 들어, 윤희네는 부인의 간절한 청으로 한 집에 살게 된다. 그리고 이 집에서 윤희와 성호의 사랑은 깊어져간다. 몇 번의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둘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결

문학동네, 2002, 65쪽)

57) 엄밀한 의미에서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은 ‘방송소설’이다. 양식적 특성은 소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방송이 될 것을 전제로 쓰여진 소설은 기능한 쉽게, 대화체를 많이 넣고,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장면묘사에 좀 더 주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선희, 앞의 글, 4쪽) 이 같은 문체와 구성상의 특징도 이 책의 상품적 가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흔하고, 아이를 가진다.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이 소설의 서사는 이것이 전부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연애와 결혼, 부르주아 가정의 행복한 일상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당대에 박계형 말고도 강신재를 비롯한 여성작가들에게서도 발견되는 1950~60년대 여성문학의 한 축이었다. 따라서 이들과 다른 박계형만의 특징 내지는 대중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사’와 동시에 다른 장치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작품 속에서 윤희는 성장하고 있다. 유년시절부터 시작되는 서사는 국민학생, 여고생, 여대생을 거쳐 주부가 되는 윤희를 보여준다. 그런데 서사를 진행시키는 속도, 즉 윤희의 성장 속도는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다. 여고생 시절은 약 70페이지에 걸쳐 가장 더디게 시간을 지체시키고, 여대생에서 결혼까지 40여 쪽, 신혼기간은 60여 쪽, 아이가 생긴 뒤부터는 40여 쪽을 할애하고 있다. 이 같은 배치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유혹이나 시련의 틈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소설을 쓴 작가 박계형은 ‘낭만적 사랑’의 결정판을 쓰고자 했기 때문이다.

“내 처녀작은 원래 『서투른 超人』이라는 순정적인 소설이었다. 그러나 P 출판사에 이것을 가져가니 내용이 밋밋하니 발가벗기는 내용의 소설을 쓰도록 주문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하숙했던 어느 여대생을 모델로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 『젊음이 밤을 지날 때』였다.⁵⁸⁾

당시 나는 『젊음이 밤을 지날 때』란 요란 난잡한 소설을 써서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을 때였다. 어서 빨리 유명해지고 싶었던 어린 소녀는 뜨겁게 써오면 출판해 주겠다는 출판사의 교사에 혹해 그만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내 단엔 이주 순수하고 깨끗한 애기를 써

58) 양평, 앞의 책, 141쪽.

보고자 해서 시도했던 것이 이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다. 허지만 이 책이 이토록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꿈을 나는 적었고, 읽는 사람들의 가슴 안에도 그것을 전달해 주고자 했다.⁵⁹⁾

박계형보다 앞서 최희숙과 신희수가 지나간 자리에서 『젊음이 밤을 지날 때』(백영사, 1963)는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업주의 출판사에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작품을 쓰도록 요구했지만, 이 점을 당시대의 여대생인 박계형은 아마 짐작했던 것 같다. 또한 그러한 작품들이 표현상으로는 꽤 도색적이지만, 결국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마음 둘 곳, 의지할 곳을 찾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여대생 박계형의 내면이기도 했을 터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오히려 이전 작품들에서 텍스트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욕망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에 대한 꿈”을 써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낭만적 사랑’이 아련하게 저 너머에 있는 무엇이어서는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다. 그것은 여대생을 포함한 여성들의 현재적 욕망을 재현해야 하는 것이다.

당대에 연애와 결혼에 관한 여대생들의 생각은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새 세대 여성들이 원하는 나의 길」, 『동아일보』, 1960.12.13.

설문대상 : 이대, 숙대, 서울문리대, 음대, 성균관대학, 중앙대, 동국대,
고대 등 총 학생 수 1040명

질문 A) 결혼을 한다면 상대자의 학력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가? 대학졸업희망이 47.2%, 대학원 37.6% : 자신과 동등한 학력이 아니면 더 높은 것을 바라는 것이 전체적인 경향인 것 같다.

질문 B) 결혼상대자의 직업은? 여기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엔지니어가

59) 박계형, 『저자 후기』, 앞의 책, 237~238쪽.

20%를 차지한 점이다. 엔지니어와 학자, 의사 등 비교적 성실성이 있고 변화와 모험성이 없는 직업을 택하는 학생이 많다.
 질문 C) 결혼상대자의 성격은? 성실한 사람 62.8% 신의 있는 사람 16.45%

질문 D) 결혼은 어떤 형식으로? 중매연애 72%

질문 F) 결혼 후 시부모와의 동거는? 같이 사는 게 좋다 47.9% 싫다 40.1% 할 수 없이 산다 8.65%

: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학생이 숫자적으로 많지만 할 수 없이 산다라는 학생은 싫다라는 심정이 더 많은 것임을 짐작할 때 대체적으로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싫다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살아도 좋다고 한 학생들도 같이 사는 것이 좋은 것 보다는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질문 G) 결혼상대자의 연령차이는? 5년 30.9%, 4년 21.9% 3년 14.3%

질문 H) 장래 자녀는 몇 명이나 원하는가? 아들2딸2 25.2%, 아들2딸1 45.5%, 아들1딸1 14.4%

「통계표에 나타난 여대생들의 졸업 후 희망」, 「조선일보」, 1961.3.8.

설문대상 : 이화여대 졸업생 천 명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연구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희망조사>

질문 A)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상대자의 학력은 어느 정도를 희망하는가?
 ①대졸 ②대학원 ③박사학위소지자 ④기타

질문 B) 결혼상대자의 연령 차이는 어느 정도를 희망하는가?

질문 C) 결혼상대의 성격은 어떠한 형을 좋아하는가? ①정치형 ②학자형 ③사회형 ④예술형 ⑤종교형 ⑥기타

질문 D) 결혼상대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 ①학자 ②교육자 ③정치가 ④관리 ⑤군인 ⑥법률가 ⑦실업가 ⑧의사 ⑨은행가 ⑩노동자 ⑪기타

질문 E) 결혼은 어떤 형식을 원하는가? ①연애결혼 ②중매결혼 ③중매연애

<답변>⁶⁰⁾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2.1%로 수위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도 많다. 연령차는 3~5세가 단연 우세, 2세 내외는 극히 적어 연령차가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 상대 성격으로는 사회형이 44.5%로 가장 높고 학자형도 29.6%나 된다. 결혼상대자의 직업으로는 학자가 수위이나 이는 이상일 뿐 경제적 밑받침이 든든한 실업가를 많이 원하고 있어 실업가, 의사의 차례로 되어 있다. 결혼방법은 중매연애가 단연 우세하다.

서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지만 두 결과는 유사하다. 여대생들은 배우자로 학력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이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인 사람을 원하고 있다. 3~5세 차이의 연령차를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선호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매연애란 “미리 부모나 어른들이 환경이나 사람됨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라면 너와 어울리는 사람일 거라는 인정 하에 소개를 받은 후 연애 형식으로 사귀어 본 다음 결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⁶¹⁾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중매연애를 원한다는 것은 순수한 중매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개입 가능하면서도, 여러 층위에서 검증된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여대생들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상형은 놀랍도록 박계형 소설 속 주인공들과 일치한다. 먼저 성호는 “분점을 수십 군데 두고 크게 번창해 가는 요리점”(97쪽)을 하고 하녀 둘과 운전수까지 두고 있는 부잣집의 외아들이다.⁶²⁾ 그는 미남형에 수재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

60) 이 기사에서는 전공별로 설문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61) 『새 세대 여성들이 원하는 나의 길』, 『동아일보』, 1960.12.13.

62) 최희숙은 ‘보헤미안’을 사랑하면서도 줄곧 잊지 못하다가 결국 ‘보헤미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엄영일’을 만나러 그의 집에 가는데, “영아네 집은 큰 이층집들이 멋지게 있는 호화로운 동네”(239쪽)에 있다. “넓은 정원에 연못이 있고 나무가 크게 자라서 바람이 나무가며 쓸쓸히 보이는 듯 한 바위, 놀랄 만치도 집이 크고 근사”(239

사가 되었다. 윤희가 21세, 성호는 25세 때 약혼식을 올리는 대목에서 (131쪽) 확인되는 둘의 나이 차이는 4살이다. 이 약혼식에서 윤희는 “한 캐럿짜리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130쪽)를 받기도 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자녀는 “11세 동아와 4살 세령”(12쪽)으로 사내아이를 먼저 낳았다. 그리고 둘의 연애는 어려서부터 한 집에 살았으므로 서로의 집안도 검증되어 있고, 어른들에게 승인받은 것이었다. 더욱이 성호의 아버지를 소설의 도입 부분에서 죽게 함으로써 이 소설은 상징적인 가부장을 삭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판타지는 바로 너무나 자상하고 윤희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윤희와 함께 죽으려고까지 하는 성호의 존재와 함께, 끊임없이 후원하는 부모이다. 고려대 이태현 교수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⁶³⁾에서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은 경제력보다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높았다. 성호는 언제나 윤희의 방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는지 의사를 묻는다. 윤희가 싫어하자 경희와 확실하게 이별해주고, 윤희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성호는 윤희에게 “이늑하고 고요롭던 기분”(51쪽)을 주는

쪽)했다. 또 “우리오리한 양복장 위로 폰즈며 향수까지 가득 찬 화장품들과 함께 서양 계집애의 인형, 차근히 정돈된 따불 벳드(Bed)가 둘, 문 들어서는 입구 왼쪽 구석에 즐비하게 세워진 이름 모를 양주와 맥주, 그리고 커피 셋드가 있고 텔레비전며 전축이 이불장 옆에 있는, 보통 가정에선 보기 드문 집”(240쪽)이다. 이 시기가 희숙의 가정에 경제난이 심해했을 때인 것을 고려해보면, 희숙은 ‘영’의 경제적 부유함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63) 「설문에 나타난 여대생들의 생활실태」, 『조선일보』, 1961.11.28. 선호하는 배우자에 관한 질문에 각자 다섯 가지씩 표기하도록 했다. 50%이상 응답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 67%

가족을 부양할만한 수입자 65%, 수입이 많은 사람 6%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85%,

대학졸업자 46%

연령이 위인사람 67%

존재인 것이다. 동시에 그녀의 부모는 안정된 경제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전쟁기간 중에도 어려움 없이 살뜰하게 희숙을 보살펴준다. “배우고 알고 싶은 의욕과 이를 성취시키는 ‘기름’ 격인 재력의 불균형”⁶⁴⁾으로 고통스러웠던 여대생에게 끊임없이, 아낌없이 후원하는 부모는 곧 판타지이다. 여대생들은 성호와 윤희의 부모와 같은 “달콤한 간섭”에 “복종”(100쪽)할 수 있는 사랑과 결혼을 바라고 있었고 이 판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박계형의 소설은 널리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소설의 기본 구성이 윤희의 시한부 선고에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스토리가 판타지라는 것을 작품 스스로 확인시킨다. 덧붙여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면서도 당대 젊은 여성의 욕망을 정확하게 체현하는 ‘낭만적 사랑’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과 제도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어내야 하는 ‘부인’ 작가들은 쓸 수 없는, 여대생 작가의 몫이었다.

5. 공감과 위로의 글쓰기

지금까지 살펴본 여대생 작가의 작품은 1950년대 후반 여대생 주체의 내면과 삶의 고민들을 살펴보게 해주었다. 주변의 과민한 시선들과 경제난 속에서도 그녀들은 대학생이 됨으로써 학력자본을 성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식들은 여대생이 불행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의 애정편력과 우울함을 기탄없이 서술하면서, 결국 ‘댄스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그려낸 최희숙의 일기가 많은 독자에게 읽혔다는 사실은, 이 언어들 통해 동시대 여대생의 사회적, 역사적 삶이 표현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희숙은 여대생 아닌 독자들에게는 여대생의

64) 이정자, 앞의 글.

내면을 이해하는 계기를, 여대생 독자들에게는 불행의 내러티브를 공감하면서 위안받는 독서 경험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구현한 박계형의 소설이 읽혔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현재적 욕망을 적확하게 재현한 판타지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시한부’ 삶의 구성을 취함으로써 이 같은 사랑이 판타지임을 스스로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계형 소설이 현실 도피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실 너머를 상상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현재를 위로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최희숙, 박계형의 작품은 ‘본격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진정성의 세계를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박계형,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삼육출판사, 1992.
최희숙, 『슬픔은 강물처럼』, 신태양사, 1959.

2. 단행본

권보드래 외, 『아프레 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61~286쪽.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110~145쪽.

3. 논문

고선희, 「사랑이야기의 젠더적 특성과 1960년대 여성 주체」, 성균관대 국문과 대학원 ‘한국근대문화론’ 수업 발표문, 2009, 1~12쪽.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19호, 2008, 7~56쪽.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16호, 2006, 177~209쪽.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호, 2006.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2010, 346~375쪽.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강신재와 한무숙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1호, 2004, 222~250쪽.
송인화, 「1960년대 연애 서사와 여성 주체」, 『한국문예비평연구』 25호, 2008, 143~175쪽.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 119~152쪽.

Abstract

Female college student writers' writing and popularity in 1960's

Cho, Eun-jung

This paper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opular appeal of female college student writers' writing, which began to appear from the 1950s, through Choi Hee-sook and Park Gye-hyeong. Starting with Choi Hee-sook in 1959, a series of female college student writers including Shin Hee-soo, Park Gye-hyeong appeared and their works became the bestsellers in the reading market and they were all made into movies. The backgrounds of the appearance of female college student writers are related with the aspects of commercial successes of the writings of female 'teenagers' including 'Francoise Sagan' and 'Anne Frank'. The publishing market in Korea, which needed 'pseudo-Sagan', found female college student writers who were not only cultured and intelligent enough but also in an ambivalent position where the people's envy and criticism were mixed.

Choi Hee-sook's diary that appeared amid such a current of the times penetrated the core of the agony and inner side of female college students at that time, who had been leading unhappy lives in the discordance of academic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Meanwhile, Park Gye-hyeong's novel shows the narration of 'romantic love' in which love is completed by happy daily life of love and marriage of individuals' free choice in bourgeois families.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Park Gye-hyeong's 'romantic love' that is different from the works of other writer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ts novelistic device and details as well as narration. When referring to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in this period, Park Gye-hyeong's work exactly reflect the fantasy related to the marriage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novel itself confirms that the story is a fantasy in that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begins with being diagnosed with terminal disease and ends up with death.

Keywords : female college students, Apres-guerre, Choi Hee-sook, Park Gye-hyeong, romantic love, Françoise Sagan, danc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